동북아 신안보환경과 북핵정책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사회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
발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동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정리 **김자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한용섭 미중 패권경쟁, 중국의 사드 반대, 한일 갈등, 문재인 정부 출범, 김정은의 건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관련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각 정부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과연 개입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도 장기적인 과제로 제기될 것인데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고자 한다.

전봉근 북한 핵문제를 가능한 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북한 핵 물질의 양이 7~8년에 두 배씩 증가한다. 북한 핵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이 더욱 커진다. 북한의 핵 물질과 핵무기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은 우리의 비핵화 요구에 더 큰 정치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며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한 붕괴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붕괴가 전망되지만, 언제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은 이제 안전보장을 비롯해 북한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 시대에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계속 높게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과 보상책을 주고받는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다. 그간 압박과 대화를 해왔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동기가 약했던 것 같다.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비핵화에 왜 응하지 않는가에 대해 좀 더 분석하여 강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6자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정말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계속하여 도발과 압박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재 상황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동결 방안을 비롯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상호 위협 감축 개념을 적용하여, 2·29 합의 플러스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서로의 안보 위협을 상호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특화된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만의 비핵화 솔루션이 부재했다. 1991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상호 간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상호 사찰을 위한 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질감시통제국(Brazilian-Argentine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ABACC)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양국은 군사정부가 민간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핵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아바크 프로그램을 한반도에 이전하였지만 한반도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1994년에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우크라이나 핵 합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은 이들을 참고하되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형중 앞으로 3~4년 동안은 북한 핵문제 때문에 높은 긴장이 유지될 것이고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들이 취해질 것이다. 그런 가운데 몇 번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북한의 의도와 계획을 살펴보면 북한은 앞으로 3~4년 동안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려고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륙간탄도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본토 공격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미국의 위상이 타격을 입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16년부터 핵 실험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험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고위험의 맞대응을 시작했다.

북한의 목적은 선제적인 긴장 조성을 통해 협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상대가 강압적인 정책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핵·미사일 개발 지속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2016년 미국 신정부 출범 직전에 핵 실험을 했다. 반면 1994년의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2003년의 6자회담도 그렇고 북한은 힘에 밀렸을 때 협상에 나왔다. 북한 입장에서 앞으로 3~4년 동안 힘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협상에 나올 이유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핵 동결이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핵 동결을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으로 핵 동결 협상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을 협상에 나오게 하려면 북한이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체적, 통일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야 그 다음으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 한국의 힘만으로 중국을 움직이는 것은 힘들 것이다.

이동휘 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북한의 의도를 핵보유용보다는 협상용으로 봤고 보수정권은 궁극적인 보유용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한쪽은 압박만을 한쪽은 대화만을 중시하는 이분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전략을 어느 한쪽으로만 판단해 버리고 그 이상의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안보 개념 자체가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군사안보만을 국가안보의 주축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소위 외교안보, 협상의 길은 없거나 반대의 현상만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 개념으로서 군사안보와 외교안보를 같이 가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협상이 달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의 협상 전략이 어느새 미국의 대외 전략을 이끌고 가는 수레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불확실성, 의외성, 공격성을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사드 비용, 한미 FTA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정답을 주려고 굉장히 고심했다. '우문으로 물을 때는 정답을 주지 마라'는 말처럼 앞으로 한미외교의 협상 과정에서 우문에 정답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협상에 전혀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인택 이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다. 먼저 북한

의 핵무기가 위협이냐 아니냐에 대한 오해다. 남한에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보다 단거리 재래식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자 오랜 시간 존재해 온 위협이다. 앞으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 드는 중국, 일본, 미국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무기의 타깃이 됨에 따라 전봉근 교수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미중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무기 개발 동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 북한은 1994년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냉전이 종식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로부터 모든 전술핵 무기가 빠져나간 시기였다. 2000년대 초반 남북정상회담 당시 다시 북한이 핵 동결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위협 수준이 낮고, 평화가능성이 높을 때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논리적으로 핵 개발이 대외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핵화를 위한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파악하고 동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동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안보 전문가들은 신앙처럼 핵무기는 억제력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다. 경우에 따라 억지를 낳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로 인한 전쟁도 발발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지난 비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우리 생각이 틀린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용섭 문재인 정부가 결국 3~4년 내에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3~4년 동안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겠다.

전봉근 북한이 나름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박형중 박사의 말에 공감한다. 북한이 핵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북한은 체제 위기, 정권 위기, 국가 위기를 동시에 겪는 아주 특이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해 핵 선제 공격으로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선제 공격을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에 대비하여 최대한 빨리 2차 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곧 50~100개의 핵무기를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빨리 막아야 한다.

또한 현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한미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붕괴나 굴복을 기다리는 다소 소극적인 북핵정책이었다.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과 중국이 중요 변수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그동안 핵문제에 압박을 가한 채 사실상 방치해 두었지만, 지금은 매우 중요한 대중 통상문제를 포기해서라도 중국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미국의 이런 정책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박형중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향후 단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제하면서 대외정책, 군사정책, 대내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달라진 태도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흥정할 수 있는 거래 품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고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대북 경제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굳이 한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견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협상하려는 시늉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시간을 벌어 스스로 취할 도발로 인한 위기에 대비하여 내부적 진영정비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무엇을, 얼마나 양보할지를 테스트하며, 한국 내부의 분란, 한미 간 분란을 얼마나 야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협상 시늉을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손해는 없고 잘되는 경우에도 전술적 수확은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영향력을 가지려면 한국과 협상을 해도 일본과 미국이 뒤에서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동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집단방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미군사동맹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다. 또한 자유무역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그의 협상 전략이 자유무역과 집단방위를 흔들고 한미 FTA 개정 문제, 군사동맹 가치에 대한 의구심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

한미동맹을 카드화했다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에서 한미동맹을 카드로 쓰기 시작하면 결국 중국의 주장대로 북핵문제와 소위 평화협정 문제가 교환될 경우, 한국은 한미 간의 소위 디커플링 때문에 어려운 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딜레마를 사전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한인택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전봉근 교수는 북한의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2차 공격 능력, 핵 보복 능력을 확보하려는 필요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말씀했다. 보복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적 요건이 상당히 낮다. 어쩌면 벌써 북한이 핵 보복 능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2차 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은 북한의 향후 2~3년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아마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동휘 교수가 말한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국과 미국,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협감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공조에서 조금씩 빠져 나오려는 디커플링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한미동맹정책은 디커플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국제공조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시 개입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용섭 북한의 핵은 한국에게는 우선적인 위협이고 한국은 북핵무기에 대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한미 양국의 공동 위협이라는 인식이 존재해 왔고 이것이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질의응답]

Q.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협정이라던가 합의가 300여 개가 넘는데 그중에 지켜진 것이 한 건도 없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왜 협상해야 하는가? 협상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북한이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듯 우리도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 교체다. 이를 우리 정책 옵션 중 하나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도 좋은 협상카드라고 생각한다.

A. 전봉근 대북정책 옵션 중 협상, 햇볕정책, 체제붕괴, 전략적 인내 등을 두고 비교할 때 옵션의 실현가능성, 비용, 전쟁방지성에 실질적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한다. 붕괴론을 과연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에 북한 붕괴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핵무기 개발 동기를 파악하고,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스캇 세이건 교수에 따르면, 보통 핵보유국은 안보, 국내정치, 위신 3가지 동기를 갖고 핵 개발을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안보와 정치가 크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압박만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고 동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A. 한용섭 제1차 남북협상의 실무자로서 2년간 참석했다. 다른 참여자들은 다 비핵화 선언으로 비핵화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북한사람들을 2년간 관찰한 결과 이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마지막 평가에서 소수의견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북한은 김씨 왕조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런데 핵보유국이 되고 난 이후 동기가 달라졌다. 미국과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김씨 왕조의 업적이다. 북한은 ICBM을 가지고 미국과 한판 붙을 때까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며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달아나게 되면 북한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미국에 안보적으로 의존한 나라로 여겨 미국이 없으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귀재이자 달인이라고 하지만 김정은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협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한다. 반면 미국은 국무장관, 차관보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기술과 다를 텐데 북미 간 회담이 재개된다면 미국이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6자회담이 실패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한미중일러 5자 간의 목표, 정책의 우선순위,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기에 다음 회담의 대안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참석하는 8자 회담을 제시한다. 한국, 일본을 포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참석하여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수호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진보, 보수를 떠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Keywords
국가안보, 미중 경쟁, 북핵문제, 사드, 6자회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북핵문제의 추가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북핵 동결, 중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전략 로드맵이 절실함. 비핵화 진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단기적 조치로서 '미니일괄타결'을 제안함. 이를 위해 핵 활동 동결을 규정한 2·29 북미합의의 복구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경제외교적 유인책을 활용토록 하며 대화 채널로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과 미북 대화를 활용하고, 필요 시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북한 핵무장의 고도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방식을 고려할 때, 핵 동결 및 평화협정 논의가 언제든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 이 과정에서 한국은 주변국을 대비한 국력의 열세 그리고 주변국과 점차로 비동기화되는 위협 인식으로 인해서 정책의 선택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이에 한국은 한미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경을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행동 교정을 목표하는 국제적 세력 연합 형성하는 등 주변국 및 강대국 외교를 적극 펼쳐야 할 것임.
- 향후 한반도 정세의 고도 긴장과 불안 상황 지속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앞으로 3~4년간 미국과 북한이 공히 '벼랑 끝 전술'에 기반을 둔 고위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체적으로 갈등과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어 불안한 상황이 예상되는 바, 대북전략과 안보전략을 이러한 전망에 맞추어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이 최종 당면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함.
- 안보환경의 급변과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조직과 역량은 과거와 대동소이하게 별 변동이 없는바, 폭증한 외교안보 현안의 관리와 한국의 주도적 대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전략기능 강화 및 정세평가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교안보정책 조직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제기함.

아시아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글로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동적 리더십의 필요

아시아 미래 연구원
Asia Future Institute

좌장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사회 **김흥수** 아시아리더십센터 대표,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이사
발표 **아담 매래처** 그로잉앳워크 대표
아미 발데모로 트리포인트벤처스 대표
우말 샤브로브 아시아리더십센터 중앙아시아 디렉터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위원
정리 **김한울** 아시아미래연구원 연구원

김흥수 현재 정치적 위기 속에 고용문제, 소득 양극화, 정보격차 등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리더십의 재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과거의 리더십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겪으며 현시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세션에서는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토론해 본다.

박진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리더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하는지가 중요하다. 제주포럼에서 가장 젊은 피로 이루어진 이 세션에서 젊음으로 대표될 수 있는 진취적인 사상과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뭉친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한다.

아미 발데모로 나는 필리핀계 미국인이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성인이 되어 필리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트리포인트 벤쳐스'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곳은 필리핀에 필요한 리더십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다. 이곳에서 일하며 리더십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작게는 모임이나 가족에서, 크게는 사회나 국가 등의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두연 미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불안감과 무질서가 만연해있어 안보가 중요하다. 1945년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자유주의 질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 이후로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외교나 소통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군사적인 힘과 재정적인 로비를 활용하려고 한다. 중국 정부도 덩달아 군사력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실종된 미국의 리더십과 중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한국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담 매래처 최근 트렌드는 '변화와 혁명'이다. 이 '변화와 혁명'은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갈등은 세대 간의 차이와 입장 차이